

< 보도자료: 제 1회 사범대학 사림세미나 개최 >

**‘5.18 민주화운동과 사범대학’을 주제로 5월 18일(월)  
제 1회 사림세미나 개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5.18 연구소 공동주최**

주제: 5.18 민주화운동과 사범대학: 기억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초청 강사: 류영룡 박사(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안종철 박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 소장, 전 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

일시: 2026년 5월 18일(월) 오후 3시-5시

장소: 전남대학교 스토리움 세미나실

주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사범대 교육학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참여대상: 전남대학교 구성원 및 일반시민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는 2026년 5월 18일,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비교사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사범대 교육학과, 5.18 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제1회 사림세미나는 전남대 스토리움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과 사범대학: 기억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남대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와 민주화 실천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날 예비교사들의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사범대학 졸업생 동문들의 발제와 사범대 재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세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세미나는 강구섭 사범대학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1부는 이지혜 교수(교육학과 학과장)의 사회로 류영룡 박사(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1980년 5월 이후 사범대 학생의 5.18 관련 투쟁의 역사와 의미’를 발표하며, 이어 안종철 박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 소장)가 ‘5.18 진상규명과정과 유네스코 등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염민호 교수(교육학과)의 사회로, 김민욱(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서종호(윤리교육과 2학년), 안은성(화학교육과 2학년), 안희수(체육교육과 1학년)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사림세미나를 기획한 강구섭 학장은 ‘사범대학 차원에서 학생, 동문, 교수진이 참여하는 5.18 관련 세미나는 처음’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5.18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 미래 교육을 주도할 예비교사들의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